

■ ■ ■ 하라노 겐이치로(平野健一郎)

와세다(早稻田)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 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 국제문화학회 회장

하버드대학 철학박사

주요 논저

『國際文化論』(東京大學出版會), 한국어역『국제문화론』(풀빛)

『戦後日本の国際文化交流』(勁草書房)

「アジアにおける地域性の創生—その原因を求めて」, 山本武彦 編『地域主義の国際比較—

アジア太平洋・ヨーロッパ・西半球を中心にして』(早稻田大学出版部)

カール・ボランニー, 『経済の文明史』(訳書, 筑摩学芸文庫)

머리말

- 왜 국제관계를 문화로 보는가
- 현대 국제관계와 문화의 중층성
- 아시아에서의 지역 형성과 문화
- 맷음말



국제관계를 문화로 본다 _동아시아의 사례

이 글에서는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와 문화의 역사적 상관성을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 이것이 향후 아시아 지역공동체 창출에 드리우는 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찍이 베네딕트 앤더슨, 칼 도이치, 어니스트 갤너 등이 논의하였듯, 사람들의 이주와 이동은 근대 내셔널리즘과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 중심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하위 문화의 다양성을 사상시킨 앤더슨이나 갤너류의 내셔널리즘론은 아시아의 사례에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근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구미의 식민제국 지배에 대항하면서 형성된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은 전통적이고 지방적인 문화의 독자성을 고수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20세기에 들어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근대적 교육의 보급에 따라 대중의 대량이동이 시작되면서, 내셔널리즘 또한 변화하고 있다. 국경 개념이 느슨해지면서, 사람들은 국민국가 보다 하위 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초국적 사회의 일원이라는 중층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문화의 다양화와 공통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다문화주의는 불가피하며, 근대 국민국가에서처럼 단일한 세계문화에 기반한 지구공동체는 실현될 수 없다. 지난 십여 년 간 동아시아에서는 인적·물적 상호교류가 놀랍게 증가했으며, 아세안+3(한국, 일본, 중국)의 각국 정부가 최근 동아시아 협력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는 달리, 아시아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를 통해 자발적으로 창출되는 21세기형 동아시아 공동체를 기대해 본다.

머리말

냉전 종식 이후 국제적으로 ‘문화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다. 냉전기 미소 간의 양극체제하에서 벌어진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 덮어져 왔던 문화 차이의 문제가 오늘날 민족분쟁, 종교대립, 언어문제, 문화마찰 등의 형태로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지구화(globalization)에 대항하면서 각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이게 되었고 다른 문화와의 차이에 민감해졌다. 지구화는 사람들의 생활을 평준화시키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이 문화 차이를 강조하게 되는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문화 차이가 탈냉전기 국제관계에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사람들 사이에 확대되는 것 같다. 국내에서 내셔널리즘이 고양된다면 국제사회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인가.

지구화는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문화를 위협하는 것 같다. 실제 지구화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냉전의 종언과 세계화의 진행이 겹치면서 사람들 사이에 국제관계를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넓은 시각에서 보면 국제관계는 냉전 이전부터 문화의 관계기도 했다. 국제관계가 시작된 때부터 그것은 문화적 관계였

* 본고는 필자가 최근 수십 년간 일본어로 발표한 이하의 졸고에서 필요한 부분을 대폭 개정하고 정리, 통합한 것으로, ‘국제관계와 문화’에 관한 필자의 논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平野健一郎, 「アジアにおける地域性の創生—その原因を求めて」, 山本武彦 編, 『地域主義の国際比較—アジア太平洋・ヨーロッパ・西半球を中心にして』(早稲田大学出版部, 2005), pp.31-64; 同「国際移動時代のナショナリズムと文化」, 日本国際文化学会, 『インターナルチュラル』4(2006), pp.2-22; 同「国際関係と文化、アジアの場合」, 早稲田大学アジア研究機構, 『アジアアビュュー』第2号(2007 近刊); 同「アジアにおける人の国際移動—東アジア共同体の原動力」, 西川潤・平野健一郎 編, 『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 3・国際移動と社会変容』(岩波書店, 2007 近刊).

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근대의 국제관계는 문화적 관계기도 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왜 국제관계를 문화로 보는가’라는 물음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관계를 문화로 봐야 할 필요성은 현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근대 아래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다음으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를 문화로 보는 시각에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생각할 때도 국제관계를 문화로 보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1. 왜 국제관계를 문화로 보는가: ‘국제관계와 문화’의 역사성

(1) 국제관계론에서의 문화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 국제관계란 주권국가 간의 관계이며, 그 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실력—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이기 때문에 문화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화가 국제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변적 존재이며,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국가의 특성, 즉 국력에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빼고 남는 ‘잉여’를 문화로 간주해 왔다. 문화는 국가 외교의 한 수단으로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문화를 경시해 온 국제정치학에서도 문화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정책결정론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로서, 어떤 특정 국가의 정책 결정과 외교가, 보편타당하다고 상정되는 패턴에서 벗어나 설명이 불가능해지자 그 부분을 ‘문화적’인 것으로 돌려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른바 ‘외교스타일론’이다.

문화를 표면적인 특이한 양식 정도로만 본다는 점에서 역시 문화를 중시하지 않는 얇은 시각이다. 이러한 얇은 시각에서는 냉전의 종언, 지구화의 엄습과 더불어 문화가 국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자 위기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문화는 근대 초기부터 국제관계와 깊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국제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근대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주체가 ‘국민국가’이기 때문이다. 국민국가는 근대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단위기도 하며, 문화적 단위라는 것이 바로 국민국가의 기본 특성이 기 때문이다. 문화가 국민형성의 기초라는 점 또한 되풀이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특정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국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적인 국민국가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떠한 국민사회를 보더라도 문화적 상황은 복잡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민국가를 ‘국민국가’라는 사회적 통합체로 있게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이상의 문화적 공통성이다”라는 정도의 애매한 정의가 나온다.¹⁾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문화적 공통성이 있어야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있다. 더구나 이 지표는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국민국가의 변용과 국제관계의 변용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지표는 사람들의 ‘이동’이다. 필자 자신이 사람들의 이동이 국제관계를 문화로 보기 위해 유효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니, 먼저 국민 형성과 내셔널리즘을 사람들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1) 平野健一郎, 『国際文化論』(東京大学出版会, 2000), p.20.

(2) 이동과 내셔널리즘

사람들의 이동과 내셔널리즘 사이의 상관성은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가 없을듯 하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바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순례권(巡禮圈)’ 개념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론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칼 도이치(Karl Deutsch)와 어니스트 젤너(Ernest Gellner) 등이 사람들의 이동에 입각해서 국민형성과 내셔널리즘을 논한 바 있었다.

여기서 사람들의 ‘이동’이란 문자 그대로 공간상의 위치 변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 이동까지 포함한다. 젤너에 의하면, “내셔널리즘이란 일차적 의미에서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함을 주장하는 하나의 정치적 원리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감정이며 운동이다.²⁾ 감정과 운동이라고 함은 내셔널리즘이 본래 사람들의 의식 위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공간 이동과 정보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일종의 의식 변화가 내셔널리즘을 배태시킨다고 이해해도 좋다. 눈에 보이는 공간적 이동이 없더라도 일종의 정보 이동이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셔널리즘의 의식이 썩튼다는 것은 이미 역사에 의해 증명된 바이다.

농경사회 시대에는 공간적인 이동도 정보의 이동도 없었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은 생겨나지 않았다. 농경사회에서도 문화적 차이는 현저하게 존재했지만, 농민들의 소공동체는 지역성에 얹매어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의 본질인 문화와 정치체의 융합을 이루어낼 힘”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다.³⁾ 산업사회 시대가 되면서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민족공동

2) アーネスト・ゲルナー, 加藤節監訳, 『民族とナショナリズム』(岩波書店, 2000), p.1;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Ithaca, NY: Cornell Univ. Press, 1983), p.1. 이하에서는 번역본 해당 페이지만 표기한다.

체가 형성되고 내셔널리즘이 발생하였다. 산업은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이동하고 서로 교환 가능한 존재로 상호 소통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의 공유 문화에 의해 경계 지어진 단위, 그 내부에서 이동 가능하고 유동적인 단위”, 혹은 “내부에서는 유동적이고 문화적으로는 연속적인 공동체”,⁴⁾ 즉 ‘민족’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자기관리 기구로서의 국가와 일치되기를 요구할 때 그 집단은 ‘국민’이 되고 그 일치에의 요구가 내셔널리즘이 된다. 이처럼 내셔널리즘을 이동과 관련시켜서 파악하는 젤너의 방식은 그보다 먼저 발표된 도이치의 내셔널리즘론과 유사하다.⁵⁾

요컨대 내셔널리즘론의 대표격인 젤너의 논의에서 내셔널리즘의 두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민족은 문화 그 자체다. ‘일정 정도의 문화의 공유’와 같은 주제함은 젤너에게 없다. 그래도 되는 걸까. 젤너에 의하면, 글을 깨치는 것이 생활의 필수요건이 되기 시작한 산업사회 초기에 지식층의 활동과 교육기구를 통해 농경시대의 특정 문화가 ‘상위 문화(高文化)’가 되는 한편, 나머지 문화들(복수)은 ‘하위 문화(低文化)’의 위치에 몰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유 문화’가 형성된다고 한다. 산업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상위 문화’(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통 언어)에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위 문화’(예컨대 방언)는 소멸되거나 봉쇄될 수밖에 없다(젤너의 ‘약한 내셔널리즘’). 그렇다면 ‘하위 문화’는 모두 사라질

3) アーネスト・ゲルナー(2000), pp.17-23, 특히 p.23.

4) アーネスト・ゲルナー(2000), p.93, 37.

5)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Nationality*(Cambridge, MA: MIT Press, 1953, 1966). 젤너의 내셔널리즘론과 그 수용의 편향성-본고도 그 오류를 면할 수 없을지 모른다-에 관해서는 馬場孝「アーネスト・ゲルナーのナショナリズム論—その原体験とウィトゲンシュタイン批判をめぐって」, 『南九州短期大学研究紀要』第9号別冊(2003年5月), pp.1-23을 참조.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겔너는 앞서 요약한 이해방식을 일반 이론으로 정식화하는 데 있어 상당히 단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 내의 하위공동체(ethnic group)에서 “사람들은 온갖 방식으로 서로의 차이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다.⁶⁾ 그는 “관료와 기업가들이 사용하는 주요 행정언어의 방언조차 할 줄 모르는 이민노동자”⁷⁾를 언급하면서, 일부 ‘청색인’이 의식 변화를 일으켜 청색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될지도 모르는 산업사회 의 ‘균열과 장벽’을 논한다. 겔너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다른 하위 공동체들 가운데 몇몇은 자신의 문화를 ‘상위 문화’화시키는 데 성공하여 독자적인 국가와 내셔널리즘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낮으며 대부분의 하위공동체들은 소멸한다고 주장한다.⁸⁾ 필자가 1980년 대 중반 아래 계속해온 주장은, 굳이 분리독립을 시도하지 않은 에스닉 그룹도 꼭 동화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 정치적·경제적 독립은 추구하지 않더라도 문화적 독자성에 의거해서 소멸을 막아내려는 집단이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애도 시대까지의 일본과 같은 농업사회에서는, 관료와 지식인뿐만 아니라 서민도 여행을 통해 하위 공동체(藩)를 넘어 이동하는 일이 있었지만, 민족의 일원이라고

6) アーネスト・ゲルナー(2000), p.109.

7) アーネスト・ゲルナー(2000), p.112.

8) 겔너의 내셔널리즘론의 출생지인 1920~30년대의 프라하는 민족과 언어가 격하게 충돌하는 곳이었다(馬場, 앞의 논문, pp.7-8).

9) Kenichiro Hirano, “Ethnic Conflict and National Integration: A Theoretical Overview,” *East Asian Cultural Studies, The Oriental Library*, Vol. XXV, nos.1-4(Toyo Bunko, March 1986). 참고로 필자는 같은 시기에 이 이론연구에 대응하는 사례연구로 “State-Forging and Nation-Destroying: The Case of the Concordia Association of Manchukuo,” Ibid.도 발표한 바 있다.

의식하지는 않았다. 막부 말기와 메이지(明治)의 ‘국민 혁명’에 의해 민족의식과 국민의식이 자라나고 전국적으로 ‘공유 문화’가 확산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방에는 지방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도 지방문화가 남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들이 병존하면서 동시에 민족·국민 차원에서 사람들이 ‘문화의 공통성’으로 묶이게 되었을 때, ‘일정 정도 이상의 문화의 공통성’에 의해 국민국가가 성립된 상태라고 펼자는 생각한다.

(3) 이동과 문화의 공통화

앤더슨의 내셔널리즘론도 내셔널리즘을 이동과 관련시켜서 논한 것이다. 그는 ‘순례(권)’과 ‘인쇄(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내셔널리즘을 이동과 문화에 의해 고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순례’를 통해 앤더슨의 ‘이동’론을, ‘인쇄’를 통해 그의 ‘문화(의 공통화)’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순례부터 보면, 앤더슨은 이로 인해 이동이 사람들의 의식에 작용하고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앤더슨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 순례와 대비되는) ‘세속적 순례’다. 이는 절대왕정 체제의 대두와 세계 제국의 등장에 의해 출현하는 것으로, 절대주의 관리들의 여행이 단일한 국가어(國家語)의 공유를 통한 ‘상호 연결의 의식’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¹⁰⁾ 앤더슨이 내셔널리즘과 연결시킨 이동이 절대주의 국가 관리의 ‘순례’라는 점에 누구나 주목할 것이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관리들의 이동이 내셔널리즘의 원점이라는 주장

10)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 白石さや・白石隆 訳, 『増補 想像の共同体—ナショナリズムの起源と流行』(NTT出版, 1997), pp.100-101.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New York: Verso, 1991).

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국민국가’는 ‘국민’보다 ‘국가’가 먼저 있었던 것이지 민족·국민이 내셔널리즘을 주창함으로써 국민국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겔너도 역설한 바이다. 필자 역시 겔너와 앤더슨의 견해에 동감한다. 그러나 이동과 내셔널리즘에 관한 논의의 또 다른 함의에 관해서는 첫 번째 함의에서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의문을 느낀다. 그것은 즉 앤더슨이 여기에서 논하는 내셔널리즘이 ‘공정(公定) 내셔널리즘’이라는 점이다.

절대주의 국가, 혹은 세계 제국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들의 이동—‘세속적 순례’—이 행정 용어를 단일한 국가어로 만들고 이러한 국가어의 공유가 ‘상호 연결의 의식’을 산출하여 이를 내셔널리즘이라 한다면, 그러한 내셔널리즘은 ‘공정(official) 내셔널리즘’이라 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앤더슨 자신의 정의에 의하면, 공정 내셔널리즘이란 “새로운 국민적 원리와 오래된 왕조원리의 용접(溶接)¹¹⁾의 산물이며, 민중적 국민운동 후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왕조국가가 의도적으로 국민과 합동한 것이다.¹²⁾ 앤더슨 역시 공정 내셔널리즘의 특징이 “그것이 국가로부터 발산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¹³⁾이라는 점을 빠뜨리지 않고 지적하지만, 앤더슨의 내셔널리즘론에서는 ‘새로운 국민적 원리’와 ‘민중적 국민운동’을 그것 자체로 논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¹⁴⁾

그런데 그러한 결여는 다른 논점에 의해 메워지고 있다. 그것이 ‘인쇄’

11) ベネディクト・アン더ーソン(1977), p.218.

12) ベネディクト・アン더ーソن(1977), p.148, 165.

13) ベ네ディクト・アン더ーソن(1977), p.265.

14) 앤더슨 자신이 『상상의 공동체』 초판의 내셔널리즘론에 대해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세계에서 공정 내셔널리즘은 19세기 유럽 왕조국가의 공정 내셔널리즘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위의 책, p.274).

와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언어, 그리고 문화의 공통화다. 『상상의 공동체』에서는 앤더슨이 ‘순례’보다 먼저 ‘인쇄’를 언급했던 사실을 밝혀두지 않는다면 그의 논리에 성설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실은 앞서 요약한 ‘순례’론에서 이미 앤더슨은 이동하는 관리들의 중요한 역할이 국가어의 공유화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여행자였다는 점이다. 속어와, 속어의 하나가 점차 ‘격상(格上)’ 된 국가행정어가 그것이다.¹⁵⁾ 이 국가행정어를 ‘국민적’ 공통어로 만드는 데 힘을 발휘한 것이 앤더슨이 말하는 ‘출판 자본주의’였다. “출판 자본주의 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기와 타자를 관계지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¹⁶⁾ 내셔널리즘을 발명한 것은 출판어(出版語)이며, 중요한 것은 행정과 교육의 시스템을 통해 “이중언어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보급되어 있는지에 있다”.¹⁷⁾ 이동해 오는 국가관리들도 속어의 화자였다. 그러나 앤더슨의 논의는 ‘공정 내셔널리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속어, 즉 지방 문화나 에스닉 문화는 거의 무시하고 만다.

(4) 이동과 문화의 경계

그렇다면 19세기부터 20세기의 이동에 있어 ‘역(域)’, 경계는 어떠한 의미를 지녔던 것일까. 19세기부터 20세기의 내셔널리즘에 있어 국경은 불가결한 요소였다. 앤더슨도 말하고 있거니와, 국민은 “한정된 것으로 상상된다”. 어떠한 국민도 가변적이나마 국경을 가진다. 그 국경 너머에는 다른 국민이 존재한다.¹⁸⁾ 확실히 기본적으로 순례로(巡禮路)는 국경에서 폐쇄된

15) 이 과정을 고찰한 가장 뛰어난 작품은 井上ひさし, 『国語元年』(新潮社, 1986)일 것이다.

16) ベネディクト・アン더סון(1977), pp.63-64.

17) ベ네ディクト・アン더сон(1977), p.211.

다.¹⁹⁾ 문제는 이러한 국경을 어떤 성격의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이다.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 중보판에서 추가한 두 장 중의 하나, 즉 제10장의 제목은 「인구조사, 지도, 박물관」이다. 이들은 ‘식민지국가의 상상(imagining) 방식’의 문법을 가장 명확히 부각시키는 세 가지 제도다.²⁰⁾ 훌륭한 차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앤더슨이 지도를 다루는 방식은 신흥국가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해도 다소 일면적이다.

우선 앤더슨은 태국의 국가형성을 지도를 통해 검증한 통차이 (Thongchai Winichakul)의 연구²¹⁾를 인용하면서, 당초 어느 지도에도 국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1870년대에 이르러 국경을 “다른 주권국가들 사이에 놓인 배타적 주권국가를 구별짓는 선분(線分)”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이 등장하고 “지도와 권력의 제휴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한다.²²⁾ 여기에 인구조사의 등장을 덧붙여 “여기서 또한 지도와 인구조사의 결정적인 교차(交叉)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는 인구조사의 형식적 장치가 만들어낸 ‘하카(客家)’, ‘타미르인 이외의 스리랑카인’, ‘자바인’ 등 무한 계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디서 끝낼 것인지 영토적으로 한정함으로써 단호하게 분해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인구조사는 일종의 인구학적 삼각측량을 통해 지도의 형식적 지형을 정치적으로 메워 갖다”²³⁾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런데 식민지를 제국의 색깔로 칠하는

18)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77), p.25.

19) パキスタン 등이 그러한 사례다.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77), p.229, 각주 41.

20)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77), p.274

21) トンチャイ・ウィニッチャクン, 石井米雄 訳, 『地図がついたタイー国民国家誕生の歴史』(明石書店, 2003)(Thongchai Winichakul,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22)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77), pp.285-287.

23)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77), p.288.

관행이 지도를 “로고(logo)로서의 지도”로 만들었다는 앤더슨의 지적²⁴⁾을 볼 때, 그가 어떠한 지도를 상상(imagining)하면서 지도론을 전개하였는지 명백해진다.

앤더슨이 말하는 지도란 국경의 구분에 따라 칠해진 정치 지도, 즉 흔히 지도책 곁표지 안쪽에 인쇄되어 있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왜곡된 뒤 주변에 각국의 국기가 배치되어 단순하게 색칠된 세계지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지도책의 본체가 되는 것은 녹색과 차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지형을 나타내는 자연지세도다. 본래 지도의 원형은 해도였고 이동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근대 지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지도 제작자,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 1527~1598, 메르카토르와 동시대 · 동향인)가 ‘세계 최초의 지도책’으로 알려진 『세계의 무대』(1570)를 출판한 16세기 후반의 지도 또한 행정 당국, 군대, 그리고 상인이나 여행자들이 구하는 지지정보를 제공하는 자연지세도였다.²⁵⁾ 앤더슨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지도출판 자본주의는 융성을 누렸고, 부르주아와 지식인의 요구에 따라 이 책은 중판을 거듭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도가 기본적으로 루트맵이었으며 역참마을이나 역이 자세히 기입되고 지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다는 점, 장서용 대형지도에서 급속히 판이 작아지고 소형화된 점, 역사지도가 추가된 점, 1612년까지 라틴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등으로도 출판되었다는 점이다.²⁶⁾ 유럽 국제정치사에서 통설은 근대 국민국가 체계의 시작점을

24)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77), p.289.

25) C. クーマ, 長谷川孝治 訳, 『近代地図帳の誕生—アブラハム・オルテリウスと「世界の舞台」の歴史』(臨川書店, 1997), p.39. 근대 지도의 탄생과 특징에 대해 오차노미즈(お茶の水) 여자대학 문교육학부 栗原尚子教授의 교시를 받았다. 감사의 뜻을 표한다.

1648년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지도의 역사를 따른다면, 내셔널리즘의 필수요건으로 간주되는 풍토와 역사에 대한 공유의식은 30년 전쟁 시작 전에 이미 나타났다. 어쨌든 근대 지도의 출발과 주류가 자연지세도였고 더구나 이동을 사용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앤더슨의 지도론이 대상으로 하는 시기에 보다 가까운 예로,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원인은 프로이센군의 사관이 지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일화는 유명한 이야기다. 근대 국가가 사용한 지도는 군용 지리지, 토지대장 등 압도적으로 지세도였다.

지도책 본체의 지도를 보면, 녹색과 차색으로 그려진 도상에 산, 강, 계곡 등이 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인구가 집중된 도시나 마을이 인구밀도의 고저에 따라 다소 다른 둥근 인(印)과 각인(角印)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지세도를 가지고 내셔널리즘을 이동과 경계와 관련시켜서 고찰한 인물이 도이치다. 도이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국민형성을 설명하는데, 그의 설명들은 정치적 동원과 문화의 공통화라는 두 축을 결합시킨 것이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설명되는 ‘정치적 동원’이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신문과 라디오를 통한 정보 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정치의식의 변화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학교 교육 등에 의한 언어와 지식의 변화를 통해 문화의 공통화가 진행되고 하위집단 간의 융합이 진척되게 된다. 하지만 정치의식의 변화에 맞춰 문화의 공통화가 진행되지 못하면 하위집단 간에서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별개의 정치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단적으로 도로와 철도가 사회적 커뮤니

26) クーマ(1997), 특히 5장과 6장.

케이션의 루트이긴 하지만, 한 나라 안에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다. 그러한 지형이 당시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장애로 작용하면서 매체를 통해 흐르는 언어에 다른 의미가 수반되면 문화의 공통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된다.²⁷⁾ 더욱이 높은 산, 깊은 계곡, 커다란 강이 있다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차단되기 때문에 양측에 완전히 독립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즉 별개의 국민이 형성된다. 자연지세도를 보면 국경선은 그러한 지형이 있는 곳에 그어져 있다. 물론 앤더슨이 지적하듯이 절대주의 국가나 식민 제국 간의 정치적 홍정에 의해 주민들의 의사나 동향을 무시하고 국경선이 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국경은 다소나마 자연지세를 따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머지않아 따르게 되거나, 영토 내에 있는 산, 계곡, 강에 좌우되어 사람들을 분열상태가 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경은 단순히 ‘주권국가를 배타적으로 구분만 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따라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앤더슨의 지적대로 “지도와 인구조사는 이렇게 해서 점차 ‘벼마’와 ‘벼마인’,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구분을 가능케 하는 문법을 만들어냈다”²⁸⁾ 할지라도, 자연지세는 에스닉 그룹의 “무한계열을 …… 단호하게 분해(시키는 것)”(앤더슨)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밝혀졌듯이 『상상의 공동체』에서 앤더슨이 공동체의 상상

27) Deutsch, op.cit., passim. 특히 펀란드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도이치의 설명법의 유효성이 명확히 나타난다.

28)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97), p.300.

(imagining)에 사용되었다고 여겨진 지도는 잘못 상상(image)된 지도였다. 이러한 오류는 아시아의 국민형성을 유럽에서부터 도래된 식민지 제국 지배와 공정 내셔널리즘에 의해서만 설명하려는 그릇된 시도와 중첩되는 것이다. 식민지 제국 지배와 공정 내셔널리즘은 아시아 각국에서 국민을 형성시키는 하나의 모멘트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은 식민지 제국 지배와 공정 내셔널리즘을 강요하는 유럽에 저항하는 내셔널리즘이었다. 공정 내셔널리즘을 지주로 삼아 형성된 아시아의 ‘근대 국가’는 근대 서구의 문화를 끊임없이 섭취했지만, 그것은 서구의 압력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의 마찰에 대한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은 문화성이 유난히 강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다수파 내셔널리즘에 대항하는 소수파 내셔널리즘을 내포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 이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이 갖는 특징이다.

2. 현대 국제관계와 문화의 중충성

(1) 국제 이동과 국경의 다공화

이상의 고찰에 의해 이동이 내셔널리즘과 떼어낼 수 없는 요건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이동이 더욱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나 20세기에 들어 여행은 이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고 다양한 군중들의 일이 되었다”. 물리적 이동의 엄청난 증가와 순례권과 순례자의 팽창, 그리고 근대적 교육의 보급이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²⁹⁾ 그렇다면

‘물리적 이동의 엄청난 증가’는 어떻게 야기되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이동 수단의 발달에 의해서다. 근대의 이동은 철도와 자동차, 그리고 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경 내에서는 주로 철도와 자동차에 의해 사람들 의 이동이 나날이 활발해졌고, 이는 국경 바깥에까지도 다소 미쳤다. 국경을 넘는 이동은 주로 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이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었다. 특히 선박에 의한 이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근대에 이루어진 이동이 국민 형성과 내셔널리즘에 결부된 것은 이같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계를 돌파한 이동 기술이 항공기다. 제트기가 민간 항로를 비행하게 된 것은 1950년대부터다. 특히 1970년에 점보제트기가 국제 민간 항로에 취항한 이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은 어마어마한 수로 늘어났다. 일본의 경우 1964년에 해외 도항이 자유화되었는데, 같은 해 신칸센(新幹線)도 개통된다. 국내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극한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것이 신칸센이라 한다면, 그 이동이 폭발하여 국외로 확장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1970년의 점보제트기다. 이동 수단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내셔널리즘의 지도자가 된 지식인이 국경을 넘어 국외로 나갔다. 그리고 근대 교육이 보급되면서 더이상 이동—혹은 ‘순례’—가 일부 특정 사람들에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 누구든지 국경을 넘어 왕래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대중의 대량 이동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도이치 류의 견해에 따르면, 국경은 단순히 ‘주권국가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에 따라서는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배제되

29) ベネディクト・アン더סון(1997), pp.190-191.

지 않는다. 점보제트기의 취항은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대중기반에서 실현한 것이었다. 국제전화와 인터넷의 발달이 이를 더욱 비약시켰다. 사람과 정보뿐만 아니라 재화와 자본 또한 국경을 용이하게 넘는다. 그 결과, 국경은 ‘무국경(borderless)’이 되지는 않았지만 무수한 구멍이 뚫린 상태가 되었다. 이같은 국경의 다공화(多孔化, porous borders)는 사람의 국제 이동을 더욱 증가시키고, 국제 이동의 증가는 국경을 더욱더 다공화시키는 상승작용의 관계에 있다.

(2) 국제 이동과 새로운 내셔널리즘

19세기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국어사전의 편찬과 같은 형태로 언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시대였다. 그리고 앤더슨에 의하면 ‘20세기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전야’에 ‘내셔널리즘의 마지막 파도’가 발생하였다.³⁰⁾ 하지만 이 ‘마지막 파도 이후’ 현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상의 공동체』의 일본어 명역자의 한 사람이자 앤더슨의 훌륭한 이해자인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도 앤더슨의 ‘내셔널리즘의 마지막 파도’ 주장에는 순간 당혹스러워한다.³¹⁾ 하지만 시라이시가 이어서 지적한 대로 앤더슨이 주장한 ‘마지막 파도’에 의해 내셔널리즘의 모험이 끝났던 것은 아니다. “‘마지막 파도’ 이후에 국민국가 내에서 때로는 국민국가의 존재론적 근거를 위협할 만한 에스닉

30)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97), p.217.

“각 왕국에 있어 종래 공정숙어를 모어로 사용해 온 독자들 사이에서 차각적 내셔널리즘은 마지막으로 나타날 것이다”(같은 책, p.134).

31) 白石隆, 「『最後の波』のあとに—二〇世紀ナショナリズムのさらなる冒険」, 『岩波講座現代社会学 第24巻 民族・国家・エスニシティ』(岩波書店, 1996). “앤더슨이 주장한 대로 …… 에스닉 내셔널리즘은(인구조사에 있어서의 에스니시티의 범주의 물상화)에서 생성된다는 설명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p.218).

내셔널리즘이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³²⁾ 것이다.

‘내셔널리즘의 마지막 파도’는 “근대” 내셔널리즘의 마지막 파도’이긴 하였다. 공정 내셔널리즘을 원조로, 정치지도의 국경 안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완결되고,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를 내세우는 내셔널리즘의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 그리고 그 후 교통·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의해 다공화된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이동하고 다언어·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얹혀 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개인이 대표하는 것은 근대 내셔널리즘의 석양일 것이다. 분명 사람들의 국제 이동이 맹렬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는 지구를 빗틈없이 덮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국경은 없어지지 않았다. 국가는 여권과 비자를 통해 여전히 국경과 국제 이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의 대상, 적어도 중요한 대상의 하나로 존속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대의 내셔널리즘을 국제 이동과 관련시켜 고찰하기 위해서, 국경을 기준으로 삼아, ① 국경을 넘어서 ‘나가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 ②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 그리고 ③ 국경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 이상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국경의 다공화는 ‘나가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과 ‘들어오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에 물리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어느 쪽 내셔널리즘이든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국제 이동을 통해 국경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은 실은 근대부터 이어져 왔고 근대 내셔널리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바 ‘원격지 내셔널리즘(long-distance nationalism)’이다. 엘리트가 외국의 망명지에서 국내의

32) 白石隆(1996), p.218.

내셔널리즘 운동을 지도하고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즉 ‘외부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은, 현대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대’ 내셔널리즘은 결과적으로 모두 다수파의 내셔널리즘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일단 성공적으로 끝난 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으로서 가능한 것은 근대 내셔널리즘에 의해 제압된 소수파의 내셔널리즘—겔너가 말하는 ‘하위문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즉 에스닉 내셔널리즘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엘리트의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대중의 내셔널리즘이다.

오늘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³³⁾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에는 두 가지 유형을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국내의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경 밖으로 나가서 다른 국가의 국경 안에서 자신들의 민족 혹은 국가를 성립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 집단이 국내에서 자신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근거지로 분리독립을 요구하던가 자립적인 집단이 되고자 하는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 외국에 그 같은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확고하더라도 그 달성을 거의 불가능하다. 집단에 소속된 거의 전원이 이주할(exodus) 수도 없다. 후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그럴만한 공간—지리적 의미뿐만 아니라—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960년대에 세계 각지에서 에스노(ethno) 내셔널리즘이 격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어느 경우에도 ‘이산’ 상태라고 할 수는 있어도 ‘약속의 땅’은 없다. 오늘날 ‘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의 가능성은 민족분쟁으로

33) 武者小路公秀 監修, 『ディアスボラを越えて—アジア太平洋の平和と人権』(国際書院, 2005)을 참조

국외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이 국내에 돌아와 거주지를 회복하고 독립 내지는 자립을 요구하는 경우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다.

한편, 들어오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이란, 방금 지적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 가운데, 다른 나라의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민족 혹은 국가의 성립을 요구하는 유형을, 시각을 바꿔서 받아들이는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본 경우이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민족 내지 국가 요구 운동을 허용할만한 공간은 받아들이는 측에게는 이미 없다. 또한 밖에서 들어오는 대중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고, 지도자도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회로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참여와 시민권, 혹은 독자적인 언어·문화를 보존하는데 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지향점이 다른 요구이긴 하나 모두 받아들이는 사회와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이러한 마찰로 들어온 사람들과 받아들이는 사람들 양쪽에서 새로운 성격의 내셔널리즘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 금일의 상황이다. 어느 경우든 내셔널리즘적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이미 근대 내셔널리즘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현실에서 국경의 다공화는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문화를 갖는 사람들과 대량으로, 게다가 끊임없이 접촉하는 상황이다. 이질적 '타자'와의 일상적 접촉은 상호 이해와 우호의 생활양식(modus vivendi)을 산출할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그 이상으로 상호반발과 배척, 적대관계를 초래할 위험성을 갖는다. 그 미묘한 균형 위에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내셔널리즘 감각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중의 하나가 '나가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 문화와

유대를 강화시키는 식의 ‘내셔널리즘’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선거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의외로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론과 ‘재외동포’라는 개념은 고향의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과 유대감을 유지하고 확대,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계 브라질인은 일본 사회로의 동화나 통합을 꺼려하고 브라질과의 결속을 유지하고자 한다. ‘타자’와의 접촉이 야기하는 일상적 마찰이 ‘작은 내셔널리즘’, 문화적 내셔널리즘을 서로 자극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국경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이자 새로운 ‘현대’ 내셔널리즘의 한 표현 형태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국경의 다공화는 이질적 ‘타자’를 대량으로 사회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근대 국가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는 일단 다수파가 제압하여 만든 단일 언어·문화·민족의 ‘균질한’ 국민국가, 혹은 연방제에 의해 그러한 문제를 조정한 국민국가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질’을 대량으로 내포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원리에 반한다. 사회의 응집성을 이완시켜서 근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위기감을 나타내는 논자들 사이에서는 종래 형태의 국민통합 원리의 부활이 제창되거나, 그것에 새로운 포장을 더한 제안이 제기된다.³⁴⁾ 이처럼 국제 이동에 반발하는 복고적 주장들

34) D. Schnapper, *La communauté des citoyens: sur l'idée moderne de la nation*(Paris: Gallimard, 1994); 佐伯啓思、「グローバリズム」という虚構」、『アステイオン』(1998 여름), pp.28-66. 이들과 대비되는 세계화론으로서, 坂本義和、「世界市場化への対抗構想」、『世界』1998년 9월호, pp.57-74; 姜尚中「グローバリズムとポスト現代」、姜尚中ほ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を読む』(情況出版, 1999); 原田太津男「複合的グローバル化—競争国家とリスク社会の成立」、峯陽一・畠中幸子 編『憎悪から和解へ—地域紛争を考える』(京都大学出版会, 2000), pp.341-395; 宮永國子『グローバル化とアイデンティティ』(世界思想社, 2000) 등이 있다. 필자의 세계화론을 정리한 글로는、平野健一郎「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下の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社会・文化変容と地域研究」、島根県立大学北東アジア地域研究センター『北東アジア研究』第

속에서, 국제 이동에 의해 출현한 ‘나가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국경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작은 내셔널리즘’이 대변자를 찾아 낼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3) 국제 이동과 다언어 · 다문화 상황

국경의 다공화와 급증하는 사람들의 국제 이동은 새로운 내셔널리즘 논의로 떠들썩해진 사이에도 그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들은 문화와 언어를 몸에 지니고 이동한다. 공정 내셔널리즘 혹은 다수파 내셔널리즘에 제압당한 근대 국가를 떠나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가는 것은 내셔널한 문화와 언어라 기보다는 몸에 배인 에스닉한 문화와 언어다. 앤더슨은 언어가 단순히 국민의 표상으로서만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하여 특정한 연대를 구축하는 그 능력에 있다”고 밀한다.³⁵⁾ 즉 앤더슨에게는 언어 역시 ‘상상의 공동체’ – ‘네이션’ –에 수렴되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네이션으로부터 떠돌아다니는 국제 이동자에게 언어는 어떠한 ‘능력’을 갖는 걸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이동지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의 ‘능력’이다. 앤더슨은 다언어사회에 있어 일상어만 사용하는 단일언어 (monolingual) 대중의 국제 이동에는 “상호 양해의 불가능성”³⁶⁾ 밖에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대중적 국제 이동자는 어디서나 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비교적 쉽게 획득한다고 생각된다. ‘상상의 공동체’를

2号(2001年10月), pp.21-30을 참조할 것.

35)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1997), pp.210-211.

36) 같은 책, p.83.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상호 양해’의 필요성도 그다지 없다. 오히려 국제 이동을 하는 대중에는 다언어(multilingual) 구사자가 많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2개 국어(bilingua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 적응력도 높다. 거기다 단편적인 영어를 더하여 국제 이동을 감행한다. 영어는 국제 이동자 사이에서 속어의 국제어(lingua franca)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언어에 대해 서술한 것은 그대로 문화에도 적용된다. 요컨대 오늘날 다공(多孔)의 국경으로 구성된 국제사회는 다언어 · 다문화사회이며, 국제 이동자는 저마다의 에스니시티를 대동하고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동지의 사회에서는 같은 에스니시티를 갖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에스닉 그룹을 형성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한다. 과거 근대시기에 선박으로 국제 이동을 행한 ‘이민’들은 이동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이주지에 영구히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주지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동화는 2세나 3세까지 이르러야 완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동화를 강요받은 것이다. 그에 의해 근대 국민국가체제는 유지되었다. 그런데 현대에는 국제 ‘이동자’는 동화를 강제당하지 않는다. 완전한 동화를 지향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다. 이동지와 출신지 사이를 얼마든지 왕복할 수 있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출신지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같은 ‘월경(越境)’에 의해 오늘날 많은 사회 내부에 다언어 · 다문화적 상황이 생겨났으며, 국제사회 전체적으로도 근대 이상으로 복합적인 다언어 · 다문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국경의 다공화와 사람들의 국제 이동에 의해, 국내에서도 사람들과 국민문화의 독점적 결합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에스닉 문화가 다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의 존재 또한 재인식 · 재강화되

고 있다. 국제 이동이 국경의 다공화를 증진시키고, 그것이 국민문화의 독점적 지위를 깨뜨려서 다언어·다문화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이다. 다문화주의는 현대 국제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사고방식이다.

(4) 문명 충돌론, 소프트 파워론의 허실

위와 같이 국제관계와 문화의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대에 있어 ‘국제관계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다문화주의와 함께 제창된 것이 ‘문명의 충돌’과 ‘소프트 파워’론이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본 논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하겠다.

이미 밝혔듯이 문화란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고안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체가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 쪽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문명’은 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 문화 전체 가운데 일부, 즉 고도로 발전되었고 다른 문화와도 다소 공통성을 갖는 이른바 ‘문명적’인 문화 요소를 가리켜 ‘문명’이라 지칭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인간은 문화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지 문명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명도 그것을 ‘전부’로 다를 수는 없다. 분명 문명적 부분(예컨대 고도의 종교)끼리 대립할 수는 있다고 쳐도 문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문명이 하나로 뭉쳐서 다른 문명과 충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문명권’이라는 걸 상정한다고 해도 헌팅턴의 주장처럼 문명권과 문명권이 전면적인 충돌 상태에 빠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시 백번 양보해서 가령 문명권을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국제체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질적인 국제체제 간의 충돌은 약 2세기 전에 근대 서구 국제체제와 몇몇 ‘전통적’인 국제질서들(중

화세계질서 등) 사이에서 발생했고 근대 서구의 국제체제가 세계를 뒤덮는 양상으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³⁷⁾

근대 서구 국제체제가 세계로 확장된 아래 각지의 문화는 근대화로부터 세계화로 이르는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문화 변용은 단일한 양상이 아니며 각지의 문화의 특징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구의 압박에 대항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문화를 변화시켜야만 했다. 근대 서구 국제체제에 편입되자마자 그 체제가 구성적으로는 국민국가체제였기 때문에 우선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문화체계를 학습해야 했고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잊달아 섭취해야 했다. 이 일련의 문화변용은 본질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문화는 하드(hard)한 힘에 의해 강요되었고 그런 다음에 안보에 필요한 하드 파워로서 각국에 적극적으로 채용되었다. 받는 측에 속한 비서구 국가들의 입장에서 ‘국제관계와 문화’를 볼 때, 문화란 소프트 파워는커녕 하드 파워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이 진요하다. 본론 1절의 끝부분에서 근대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은 저항적 내셔널리즘이었다고 서술했지만, 그것은 하드 파워인 문화를 향한 저항과 이용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현대의 국제정치와 외교를 잘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하드 파워’(군사력)뿐만 아니라 파워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파악해서 능숙하게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소프트 파워론의 공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미 우위의 현상을 ‘보다 현명하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문화를 부여하는 입장에 서있는 강국의 논리다.³⁸⁾ 무엇보다도 문화를 홍보외교의 수단인

37) ‘문명의 충돌’론에 대한 필자의 비판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平野健一郎, 「文明の衝突か、文化の摩擦か?—ハンチントン論文批判」, 比較文明学会『比較文明』10(1994), pp.21-37을 참조할 것.

것처럼 파악하는 시각은 좁고 얕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에 착안하여 보았을 뿐, 국제사회를 주권국가 간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평면적 구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교 스타일론과 동일한 계열에 있다. 국제사회 전체의 시점에 입각하여 그 평화와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변화를 구상하려고 한다면 ‘국제관계와 문화’를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하드 파워’일 수도 있다는 냉엄한 이해에 입각하여 문화의 공존과 협조를 가능케 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구조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5) 국제사회의 중충성

문화적 상황을 보면 오늘날 국제사회의 구조는 중충적이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문명의 충돌’론의 최초 논문에 쓴 유명한 일화로, 나이지리아 동부지역에서 오웨리 이보(Owerri Ibo)족이나 오니차 이보(Onitsha Ibo)족으로 간주되는 청년이, 라고스에 가면 이보족이 되고 런던에 가면 나이지리아인이 되고 뉴욕에 가면 ‘아프리카인’으로 보인다는 사례가 있다. 헌팅턴은 이 사례를 그 청년이 뉴욕에서는 ‘아프리카인’으로 일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였다.³⁹⁾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미국인’이 그를 ‘아프리카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 ‘미국인’이 뉴욕 흑인사회의 한 명의 가난한 흑인일 수도 있듯이 그 ‘아프리카인’은 나이지리아인이자 이보족이고 동시에 오웨리 이보족 내지는 오니차 이보족이기도 하다.

38)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문화 요소를 ‘주는’ 측에 설 수도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9)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summer 1993), p.26. 平野、 앞의 책, 「文明の衝突か、文化の摩擦か？」 p.36.

이는 한 인간이 결코 하나의 문명권에 속할 수 없고 중중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공적 국경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사람들은 이제 예전만큼 국내사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국민(national) 사회 레벨보다 하위(sub-national)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도 느끼고, 상위(supra-national) 레벨의 사회의 일원이라는 감각도 가지기 시작했다. 상하에 복수의 사회가 존재하는 중중적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은 점보제트기가 민간항로에 취항한 1970년경부터 자신을 중중적 상태의 세계 속에 위치시키게 되었다. 전 인류가 지구라는 자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공생하고 있음을, 공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국민사회로만 귀속되며 무한하다고 믿어왔던 자원을 서로 다투는 평면적인 국제사회가 아니라, 중중적인 국제사회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출현한 이 때, 근대로부터 현대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시대의 거대한 전환이다. 통상 그러한 전환이 찾아온 것은 냉전의 종언 시점이라고들 하지만, 냉전사 연구의 최근 성과⁴⁰⁾에 따르면, 바로 1970년을 전후한 문화의 변화가 냉전의 종언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현대에 있어 국제 이동이 이만큼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종횡으로 접촉·교류해 나간다면, 예전에는 내셔널한 범주에서 일어났던 일, 즉 문화의 공통화가 지역적(regional)·전 지구적(global)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아니오’다. 하지만 전면적인 부정은 아니다.

우선 앞에서 서술한 것에서 명백해졌듯이, 다양한 문화의 동시 진열은

40) Jeremi Suri, *Power and Protest: Global Revolution and the Rise of Détente*(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공통화를 촉진하기보다 각자의 특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국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의거하는 자기만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고, 그 특성 주변에 모여 들려고 한다. 소수민족 집단(ethnic enclave)을 만들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문화를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가 공통화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 특정 문화가 특정 집단(예컨대 국민, 에스닉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간의 문화교류는 오히려 특정 문화, 따라서 특정 집단(의식)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과거에 내셔널한 레벨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함께 진행된 문화의 공통화가 사람들의 국제 이동과 함께 그보다 상위에 있는 지역적·전 지구적 차원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지구시민론자는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다. 그러나 앤더슨 식의 조건을 적용해 볼 필요도 없이, ‘상상의 지구 공동체’가 출현할 조건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하나의 문화·언어가 다른 모두를 압도하는 형태로 ‘상상의 아시아 공동체’나 ‘상상의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만들 수도 없는 법이다.

그러나 지방(local) 레벨, 국가(national) 레벨, 지역(regional) 레벨, 전 지구(global) 레벨 등 차원이 다른 레벨에서 일정 정도의 문화의 공통성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최근 사람들의 국제 이동에 의해 이미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공통 문화와 공통 의식의 중층적 존재는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레벨에서 문화의 다양화와 동시에 문화의 공통화도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역시 내셔널 레벨에 독점된 일원적인 것이 아니라 중층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국제 이동이 문화의 공통화만을 진전시키고 자동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복수의 레벨에서 문화의 다양화와 공통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복수의 레벨에서 문화의 다양화와 공통화가 진행되는 국제사회에서는, 문화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다문화주의의 사고방식에도 더욱 새로운 전개가 필요해진다. 1960년대 전반에는 캐나다 등지에서 민족 문화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그러한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사고방식으로서 '다문화주의'가 제창되었다. 그 '다문화주의'는 '수평적 다문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한 국가의 국내사회에서 문화의 공존을 실현하려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수직적 다문화주의'가 가능해졌고, 필요해지고 있다. '수직적 다문화주의'란 한 단계 아래 사회의 문화와 한 단계 위 사회의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다. 국가 레벨에서는 서로 다른 국민문화를 가지고 문화 간의 차이에 의해 대립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 위의 지역 레벨에서는 같은 지역의 인간으로서 문화가 다소나마 공통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공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제사회의 중층성과 문화의 중층성에 걸맞는 다문화주의는 수직적 다문화주의이다. 상하에 복수의 사회가 존재하는 중층 상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된 사람들은 문화의 중층성을 의식하게 되고 점차 수직적 다문화주의를 실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화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 즉 '초국적 이동(transnational migration)'이라고도 불리는 월경(越境) 행위인 것이다.

3. 아시아에서의 지역 형성과 문화

(1) 트랜스내셔널 아시아

최근 아세안+3(한국, 일본, 중국)의 각국 정부가 마침내 합의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회원국의 구성에서 보면 1990년에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당시)이 제창한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G, 훗날 EAEC) 구상과 동일하다. 1990년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정부의 반대와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동아시아경제협력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동아시아’ 13개국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보조를 맞춰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동아시아경제협력체’ 선언이 십몇 년 후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으로 부활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계국 정부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를 인정하고 정책을 변화시킨 측면도 있을 것이다. 특히 1997년에 아시아 통화위기를 겪은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지난 십몇 년 사이에 ‘동아시아’ 공간의 국가 간 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경제협력체’ 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으로 환생한 것은 국가 간 관계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십몇 년 동안에 국가 간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크고 깊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변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가 그것이며, 그 변화는 ‘트랜스내셔널 아시아’라 불릴만한 아시아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는 마하티르를 포함한 ‘동아시아경제협력체’ 각국의 수뇌들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정부들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국가 간 관계의 차원에 미쳐 ‘동아시아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2) 사람들의 이동범위로서의 동아시아

우주위성이 야간의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구는 야간에도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으로 양분된다. 눈에 띄게 밝은 지역 중의 하나가 ‘동아시아다. 더구나 육지뿐만 아니라 남지나해, 동지나해, 황해, 쓰시마해협, 동해 등 해상도 굉장히 밝고 그 빛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한편 그 속에도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암흑의 지역들이 점점이 존재한다. 북한, 시베리아, 중국 내륙지역 등이다. 이 명암(明暗)이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의 총량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보다 넓게는 이 지역 사람들의 활동의 총량이다. 민간항공로(거기에 편수를 더한) 네트워크의 조밀도를 살펴보면, 1990년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아시아 대륙의 서태평양 연안 지역 일대—동쪽은 동경에서부터 서쪽은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까지, 북쪽은 동경과 서울에서부터 남쪽은 자카르타까지를 경계로 하는 지역—에는 밀도가 높은 항로망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타원형 모양으로 생긴 이 공간은 다른 지역들과 서서히 분리되면서 2000년에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⁴¹⁾

이 타원형의 항공로망이 덮고 있는 지역, 하나로 연결된 밝은 지역, 이것이 지역성을 드러내 온 ‘동아시아’다. 국가 간 관계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동아시아’ 공간은 여기에 있는 13개국이 차지한 영토를 합산한 것이지만, 실은 그것이 실체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아시아 사람들의 국제 이동이 그려내고 있는 타원형에 의해 증명된다. 이 타원형의 범주에는 분명 2005년 12월 ‘동아시아 공동체’ 정상회담에 정부수뇌가 참여한 13개국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 내륙지역은 아직 ‘동아시아’에 완전히는 포함되

41) 平野健一郎, 「アジアにおける人の国際移動—東アジア共同体の原動力」, 西川潤・平野健一郎編『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3・国際移動と社会変容』(岩波書店, 2007(近刊)).

지 않는다. 한편 대만은 이 타원형의 중심부에 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이 타원형의 관계는 아직 일천하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동아시아’의 지역성에는 각국 정부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동안에 발견되는 문화의 공통성, 친근감이 존재한다. 이것이 예컨대 아시아라는 지역의 많은 문화들과 거의 공통되는 경우, 거의 공통되는 것을 ‘아시아 지역 문화’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과 함께 문화의 중충성을 실감하고 수직적 다문화주의를 실천하게 된다. 분명 아시아에는 ‘지역문화’라 불릴만한 문화 요소가 아직 적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전에는 농촌에 처박혀 지방문화 속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근대화에 의해 이동하기 시작했고, 몇 세대에 걸쳐 이동을 거듭하는 동안에 국민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동일한 일이 한 단계 상위차원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저마다의 국민문화, 지방문화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문화의 원리라는 점이다. 문화가 완전히 동일해지지 않는다면(혹은 아이덴티티가 공통되지 않는다면) 지역이 하나로 뭉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공통성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중요한 것은 문화의 중충성에 대한 의식의 발달이다. 사람들의 국제 이동을 이것이 촉진시키고 있다.⁴²⁾

요컨대 동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의 활발한 국제 이동과 그에 수반되는 문화의 이동과 교류, 그리고 한정적으로나마 문화의 공유화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가 제창되는 지역은 그러한 ‘하나의

42) 필자는 원래 문화 요소의 국제 이동에서 ‘국제관계와 문화’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서부터 사람들의 국제 이동이 국제관계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것도 사람들의 이동이다.

일체’로서, ‘서민의 행동범위’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⁴³⁾ 문화의 공유화가 그만큼 진행되었는가, 현재 언어는 제각각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언어는 이제 치명적인 조건 혹은 제약이 아니다. 사람들은 ‘아시아 공통어’를 쓰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일반인의 국제 이동과 국제 교류가 근소한 부분일지라도 아시아 지역의 차원에서 문화의 공통성과 공통의 아이덴티티 감각을 초래한다면, 극히 피상적이나마 내셔널리즘을 넘어선 지역주의가 생겨날 것이다.

맺음말: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에의 기대

21세기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다. 아시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족 해방을 이루고 주권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서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이라는 지역연합을 형성하였고, 그 아세안이 지금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제창하고 있다. 70년 전에 일본 제국이 시도했던 대동아공영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이제 가능성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13개국의 정부가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실태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행동범위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고 있다. 문화와 사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이는 이제껏 세계에 없었던 움직임이라 할 만하다. 이 지역 공동체는 결코 단한

43) 平野健一郎, 「アジアにおける地域性の創生—その原因を求めて」, 山本武彦 編『地域主義の国際比較—アジア太平洋・ヨーロッパ・西半球を中心にして』(早稲田大学出版部, 2005), pp.31-64, 특히 p.60.

공동체가 아니다. 이 지역에 그러한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은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국제관계(transnational relations)가 발전해 온 결과다.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이 병존하는 아시아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문화의 중층성 위에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를 통해 자발적으로 창출되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문화의 공통화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일본이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다면, 일본과 일본인에게 대동아공 영권의 잘못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측면만을 언급했지만, 사람들의 월경 행위가 기대 하던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은 그것에 수반하여 불법적 이동, 불법적 거주, 국제적인 인신매매, 국경을 넘어선 인권 문제, 국제테러, 전염병 등 다양한 새로운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 빈곤 문제, 인구 문제, 자원 문제, 환경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이슈’로 불리는 국제 문제들 중 다수가 사람들의 국제 이동과 많은 적든 연동된다. ‘지구화’로 촉발되는 최근의 경제, 문화에서의 급격한 변화에도 사람의 국제 이동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경하는 사람들의 ‘귀속’(국적, 시민권)의 문제는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동요시킴과 동시에 모든 나라에 심대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의 국제 이동과 관련되는 이상, 사람의 국제 이동을 현상(現狀)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람들의 월경활동과 병행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이상, 국제적인 해결로 맞설 필요가 있고, 그 대처는 우선 사람들의 국제 이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람의 국제 이동은 그 범위 내에서 많은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를 촉진하기 마련이다. 환언하면,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국제 이동은 많은 국제문제의 원인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적 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번역: 이현미 · 이경미)

논문 접수일 4월 27일, 심사 완료일 6월 8일

Abstract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a Cultural Perspective : in the Case of Asia

Kenichiro Hirano

Department of Global Political Economy, Waseda University, Tokyo, Japan

This paper attempts to shed an insight into the concept of an Asian regional community. It looks at the discussions of various scholars on the consistent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lture throughout history, from the dawn of modernity to the current days. Scholars such as Benedict Anderson, Karl Deutsch, and Ernest Gellner have explored the important role of population movements and migration in the birth of modern nationalism and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However, concepts such as Anderson's emphasis on the integration of the national empires and multiethnic sub-cultures or Gellner's line of nationalism need modification when being applied to the Asian case. Nationalism of many Asian countries has sprung out of the dual process of seeking modernization and resisting colonialization, and remains distinct in the way of its traditionalism and indigenousness to each region. The 20th century saw drastic changes in the Asian brand of nationalism, brought on by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spread of modern education system, and increasing mass migration. As the concept of national borders has weakened, Asians have begun to perceive themselves less as members of particular nation-states and more as members of both sub-national and supra-national communities. At the same time, there is the process of both divers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ltures o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Rise of multiculturalism is inevitable in today's world, and it will never again be possible to create a unitary world based on a single national culture. The last decade saw an incredible surge in East Asia of exchanges in human resources and commodities, as can be seen in the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s of Korea, Japan, and China to participate in the ASEAN + 3 mechanism. Far from the old Pan-Pacific ambitions of the Japanese empire in the last century, Asians are looking forward to a 21st century with a popularly initiated East Asian community with free movement and exchanges of people and cultures.

Keywords: culture, international relations, Asia, nationalism, globalization, communities

Culture and Power

Jung-Woon Cho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would be complicated to find any logical junction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or power. This article, however, aims at exploring the link built up by the medium of "discourse." Since the late 18th century, the cultural discourse in the modern western Europe was formed and expanded with the rise of nationalism, which in turn had functioned as an essential factor of actors' ident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levant to the extent of acceptabl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level of actors' status. Based on this logic, this article makes a critical argument on Orientalism of E. Said and Soft Power of J. Nye. It might be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conflictual aspect of the cultural discours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ts function as a basis in terms of existence, rather than interest or power.

Keywords: cultural discourse, power, international politics, Orientalism, Soft Power, being/existence

Soft Power and the Lens of Gender

Euikyung Park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1990s, power and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has been diversified with the end of ideology.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contents of diversified power, or "Soft Power." It is a new source of power to resolve the limits of rigid applicability that Hard Power has shown, which includes not only culture and value systems but also women's point of view. The lens of gender could examine the notion of war and security from different